

아름다운
행복한 시민

공무국외여행 배낭연수 결과보고

2019. 10.



모자이크

목 차

I . 연수개요	1
II . 연수국가 현황	2
III . 연수내용(주요방문도시)	4
- 토론토	4
- 오타와	7
- 퀘벡	9
- 몬트리올	10
IV . 연수결과 및 시사점	13

I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이민자와 다른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차별과 편견없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범적 선진국가를 통해 다문화 정책 우수사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접목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자 함
- 또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고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양성 존중 인식개선의 발판을 삼고자 함

2. 연수일정

- 기 간 : 2019. 9. 26.(목) ~ 10. 2.(수)[5박7일]
- 인 원 : 6명
- 연수국가 : 캐나다

3. 연수자명단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역할
사회복지과	복지6급	서근화	· 연수총괄
의회사무국	행정6급	박영선	· 보고서 작성
경로장애인과	복지7급	이성백	· 사전조사 및 계획
총무과	행정7급	송경희	· 보고서 작성
자원순환과	임기제마급	유상봉	· 사진촬영 및 기록
신창면	임기제마급	김진옥	· 사전조사 및 회계

4. 연수세부일정

날 짜	지 역	일 정	비 고
9.26.(목)	토론토	· 토론토 신청사 방문 · 온타리오주 의회의사당 방문 · 토론토 대학 방문	
9.27.(금)	킹스턴 / 오타와	· 킹스턴 천섬 방문 · 오타와 연방의사당 방문 · 리도운하 및 총독관저 방문	
9.28.(토)	퀘벡	· 성요셉성당 견학 · 화가의 거리, 로얄거리	
9.29.(일)	몬트리올	· 몬트리올 구시가지 및 자크카르띠에 광장	
9.30.(월)	나이아가라	· 나이아가라 파크웨이	
10.1.(화)	토론토	· 체크아웃 공항이동 (비행시간 약 13시간)	
10.2.(수)	인천	· 인천공항 도착	

II 연수국가(캐나다) 현황



캐나다
Canada

1. 공용어 : 영어, 프랑스어
2. 수 도 : 오타와
3. 면 적 : 9,984,670km²
4. 종족구성 : 다양[영국계(28%), 프
랑스계(23%) 등]

5. 캐나다 일반현황

-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며, 전체 면적이 9,984,670km²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40%는 춥고 고립된 북극 지방으로, 원주민인 이누이트족 외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 국토가 너무 넓어서 지역마다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사용하는 데,

태평양 연안·산악 지역·중앙부·동부·대서양 연안·뉴펀들랜드 지역으로 나뉜다. 캐나다의 수도는 연방 정부가 있는 오타와이지만, 열 개의 주와 세 개의 자치주에도 각각 연방 정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 정부가 있다.

- 전체 인구가 약 3,430만 명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 세계적으로 인구가 적은 나라 중 하나이며, 그 중 약 80%인 2,500만 명 이상이 남동부의 도시에 거주한다. 캐나다에는 여러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데 영국계가 28%로 가장 많고, 프랑스계가 23%, 기타 유럽계가 15%, 아메리카 원주민이 2%,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아랍계가 6%, 그 밖의 혼혈 및 다른 민족이 26%를 차지한다.

6. 캐나다와 대한민국 관계

- 캐나다와 한국은 긴밀한 우방이다. 캐나다는 1950년 한국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약 2만7천명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 후 1963년에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무역 협정과 기술 협력 협정, 비자 면제 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 현재 캐나다는 한국의 열네 번째 중요 교역 대상국, 한국은 캐나다의 여덟 번째 중요 교역 대상국이다. 많은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이 캐나다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약 17만 명 이상의 교포가 온타리오 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퀘벡 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유학생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Ⅲ 연수내용

1. 토론토 신/구청사

- 토론토 신청사는 국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핀란드 출신 건축가 빌리오 레벨 (Viljo Revell)의 작품으로 1965년에 완공하였다. 시청은 높이가 다른 반원형 쌍둥이 타워 두 개를 낮은 건축물로 연결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토론토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 신청사 앞에는 1955년부터 1962년까지 토론토 시장이었던 네이션 필립스 (Nathan Phillips)의 이름을 딴 네이션 필립스 광장(Nathan Phillips Square)이 있다. 여름에는 ‘프레시 웬즈데이스(Fresh Wednesdays)’라는 농산물 시장이 서고, 무료 공연이 열리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겨울에는 광장 분수가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로 바뀐다. 광장 지하 주차장은 차를 2,400대 수용할 수 있다.
- 신청사 맞은편에는 캐나다 출신 건축가 에드워드 제임스 렌녹스(Edward James Lennox)가 디자인하여 1899년에 건립한 옛 시청(Old City Hall)이 있다. 독특한 구조의 신청사 옆에 전에 사용하던 구청사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옛 청사 건물은 지금 주 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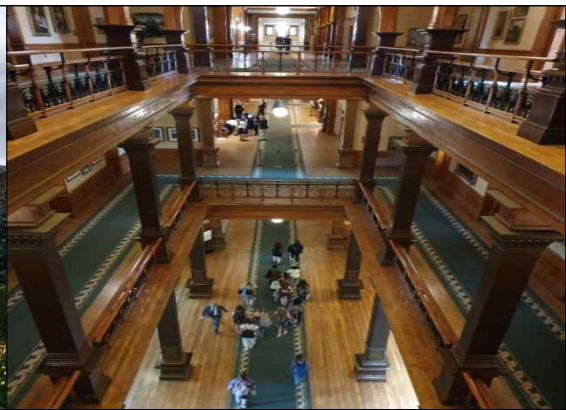


2. 온타리오주 의회의사당

- 1993년에 100주년을 맞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유서 깊은 의사당. 붉은 사암으로 지어져 때로는 핑크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지금도 의회가 열리는 곳으로 관광객도 방청할 수 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며 내부는 천연 대리석과 마호가니 자재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무척 화려하다. 의사당을 둘러싼 퀸스 파크는 토론토의 상징과도 같다.



■ 온타리오주 의회의사당



■ 의회의사당 내부

3. 토론토 대학

- 토론토 대학교의 모체는 1827년 영국 왕 조지 4세(George IV)의 칙허장(royal charter)에 기초해 어퍼 캐나다의 수도이던 요크타운(현재의 토론토)에 설립된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다. 1851년 토론토 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세인트조지, 미시사가, 스카버러의 3개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다. 세인트조지 캠퍼스에 5만 4,000명, 미시사가 캠퍼스에 1만 2,000명, 스카버러 캠퍼스에 1만 600명 등 모두 7만 7,288명의 학부와 대학원생들이 재학 중이다. 도서관은 북미지역에서 하버드, 예일, 일리노이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1,00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비롯해 540만 개의 마이크로필름, 100만 개의 지도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타임스>가 발표한 2010년 세계 대학 순위(World University Ranking)

에서 캐나다 1위, 북미 13위, 전 세계 17위에 올랐다. 매년 전 세계 대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러 평가를 보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생명과학, 수학, 공학, 의학, 사회과학, 물리학 등 각각의 분야에서 캐나다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10~30위권)의 명문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노벨생리학·의학상 수상자 프레더릭 뱅팅을 비롯해 10명의 노벨상 수상자, 6명의 캐나다 총리(또는 총독), 4명의 외국 국가원수, 14명의 대법관 등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 2011년 기준 학부생들을 위해 이니스칼리지, 뉴칼리지, 유니버시티칼리지, 우즈워스칼리지, 트리니티칼리지, 빅토리아 대학교, 넥스칼리지 등 12개의 단과대학과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생들을 위해 매시칼리지(Massey College)가 설치되어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처럼 여러 칼리지들로 나뉜 탓에, 칼리지마다 전공분야뿐 아니라 신입생 정원과 입학조건 등도 각각 다르다.



4. 킹스턴 천섬

- 천섬 (Thousand islands)은 세인트로렌스 강에 위치해 무려 1800 개 이상의 섬이 위치한 곳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곳입니다. 과거 19세기 쯤 상류층들을 위한 휴양지이기도 한 이 지역은 현재 여러 야외 활동을 위한 중심

지라고 합니다. 하트아일랜드의 독일식 볼트성, 다크아일랜드의 싱어 캐슬과 같은 정교한 섬 저택들이 있고, 과거 건축 문양들을 많이 볼수 있는 곳입니다.



5. 오타와 국회의사당 및 리도운하

- 수도 오타와의 당당한 위용을 대변하는 곳이 언덕 팔러먼트 힐(Parliament Hill)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이다. 네오 고딕양식의 건물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명령에 따라 1800년대 중반에 지어졌다. 중앙탑 위에 오르면 오타와 강 건너 가티노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오래된 건물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은 아름답다.
- 이왕 국회의사당까지 왔으면 편견을 버리고 내부를 두루 둘러볼 일이다. 실내 장식은 운치 있고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는 의자는 옛날 교실 나무의자처럼 단출하다. 회의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함께 진행된다. 낮은 목소리가 오가고 정중하게 발언권을 얻어 얘기하는 모습이 오타와 강의 풍경만큼이나 단아하고 사랑스럽다.
- 국회의사당 앞 거리는 강을 건너온 퀘벡 차량들이 여유롭게 오간다. 오타와에서 퀘벡 차만 별도로 구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 번호판이 없는 차들은 모두 퀘벡 차들이라고 보면 된다. 불필요한 경비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퀘벡 주의 자동차 번호판에는 'Je me souviens'라는 프랑스어가 적혀 있다. '나는 기억한다'는 의미로, 한때 영국계에 의해 지배당했던 프랑스계 주민들에게는 좌우명처럼 여겨지는 말이다. 영국여왕이 짓도록 명령한 국회의사당을 앞을 지나는 차량의 문구치고는 꽤 도전적이다.



- 오타와의 도심은 리도 운하가 가로지른다. 국회의사당을 나서 10여 분 걸으면 도심의 또 다른 이정표인 샤토 로리에 호텔(Chateau Laurier Hotel)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앞을 운하가 지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운하의 총 길이는 200 km가 넘는다. 초창기 수문이 간직된 곳에는 운하의 역사를 담은 바이타운 박물관(Bytown Museum)이 들어서 있다.
- 운하는 애초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됐다. 운하를 건설한 ‘존 바이(John By)’ 대령의 이름을 본따 오타와의 옛 이름도 한때는 바이타운으로 불렸다. 군수물자를 옮기던 운하는 지금은 오타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됐다. 여름이면 유람선이 오가고 겨울이면 세계에서 가장 긴 스케이트 링크로 변신한다.

6. 오타와 총독 관저

- 1938년 Rideau 운하 건설에 참여한 건축업자 Thomas MacKay가 개인저택으로 건축하여, 1857년 초대 총독인

Monck경이 임시관저로 임차한 것이 계기가 되어 1868년 정부가 매입한 이후 연방총독관저로 사용되고 있다.



■ 오타와 총독 관저

7. 퀘벡 로얄광장 및 프레스코벽화

- 프티 샹플랭 거리 북쪽에 위치한 플레이스 로얄(Place Royale)은 퀘벡 시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프랑스 식민지 초창기 거주지로, 광장을 중심으로 좁은 골목과 석조 가옥이 어우러져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갤러리와 부티크, 레스토랑들이 즐비해 원도 쇼핑을 즐기거나 테라스에 앉아 느긋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광장 한복판에는 ‘태양왕’으로 불리던 프랑스 루이 14세의 흉상이 서 있으며, 퀘벡주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축인 승리의 노트르담 교회가 자리한다.
- 프레스코벽화는 400년 이상된 작품들로, 어퍼타운인 구시가 지 지역과 로어타운인 구항구 지역의 경계인 노트르담 거리와 코테 드 라 몽탄에 위치한다. 5층 건물의 한 면 전체가 벽화로 되어 있는데, 당시 캐나다와 프랑스 출신의 화가 17명이 작업에 참가했다. 현대와 근대를 아우르는 생활상, 처음으로 이곳에 취락을 건설한 샹플랭 등 캐나다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이 프레스코화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고, 인물들을 자세

하게 설명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 로알광장



■ 프레스코벽화

8. 몬트리올 성요셉성당



■ 성요셉성당

○ 캐나다의 수호성인인 요셉을 모신 성당이다.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는 순례지로 유명하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당으로 꼽힌다. 높이 97m의 초록색 돔이 성당의 상징인데, 이것은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크기라고 한다.

○ 몬트리올 성요셉 성당은 기적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1904년 성당을 세운 앙드레 수도사는 불치병을 고치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녔던 인물로 ‘몽루아얄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불렸다. 성당 입구에 수많은 양의 지팡이와 목발이 쌓여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바로 그가 병을 고친 사람들의 것이라고 전해진다. 함께 자리한 박물관에는 앙드레 수도사의 심장이 전시되어 있으며 앙드레 수도사가 살았던 지하의 침실이 있다. 수도사의 실제 크기 모형과 더불어 사용했던 침구나 타자기 등의 물건을 만나볼 수 있다. 부속 예배실은 일

반인에게 개방되고 있다. 몬트리올 성요셉 성당은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성당으로 지어졌으나, 많은 이들이 찾으면서 여러 차례 개축을 거듭하였다. 1967년 현재의 웅장한 모습으로 완공되었다. 내부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기념품 가게와 카페, 식당이 함께 자리해 있다.

- 성요셉 성당은 몽 루아얌(Mount Royal)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몬트리올의 남서부 어디에서나 이 성당의 돔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대성당에서 내려다본 몬트리올 시내의 모습이 아름답다

9. 몬트리올 자크카르띠에 광장

- 노트르담 성당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자크카르띠에 광장을 중심으로 구시가지가 형성되어있다. 자크카르띠에 광장은 몬트리올을 처음 발견한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카르띠에의 이름을 따서 만든 광장이다. 이 광장은 1804년에 마을의 시장이 열리던 장소로 입구에는 당시 통치자이자, 해군사령관으로 프랑스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공적을 남긴 벨슨장군의 동상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선 예전부터 꽃 시장도 많이 열려서 그런지 다양한 꽃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다.
- 광장 주변에는 개인이 하는 노점상들이 많았는데, 가죽공예 제품이나 유리공예제품들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주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더 독특하다.



■ 노트르담 성당



■ 자크카르띠에 광장 거리(현지인과 함께)

10. 나이아가라 파크웨이

-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높이가 55미터에 폭은 671미터에 달한다. 폭포는 고트 섬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뉜다. 동쪽은 아메리칸 폭포이며 왼쪽은 캐나다의 호스슈 폭포이다. 오대호의 하나인 이리 호수에서 나온 물이 35킬로미터를 흐르다가 물살이 급해지다가 싶으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온다. 이 폭포에서 떨어진 물은 다시 온타리오 호수로 흘러간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후 폭포가 흘러들어가는 하류는 11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초당 7,000톤씩 기반암을 흘러내리는 물이 계속 바위를 깎아내면서 폭포는 일 년에 1~2미터씩 후퇴하고 있다.
- 이곳에는 폭포를 '타려는' 사람들의 도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샘 패치는 1829년 세계 최초로 고트 섬에서 뛰어내렸는데 놀랍게도 목숨을 부지했다. 또 애니 에드슨 테일러는 1901년 최초로 나무통을 타고 폭포를 건넜다. 그녀는 '안개의 여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한밀천 잡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대신 '안개의 하녀'라는 이름의 유람선이 관광객들을 싣고 캐나다 쪽이나 미국 쪽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보라 속으로 들어간다.



■ 나이아가라 폭포

IV 연수결과 및 시사점

1. 캐나다 사회 : 모자이크 다문화주의

- 캐나다는 흔히 미국과 함께 ‘이민자들의 나라’로 불린다. 하지만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여러 민족의 문화가 ‘용광로’처럼 뒤엉켜 있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문화 다원주의를 표방한다. 이는 이민 사회 고유의 색채를 존중해주는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다. 특히 토론토는 어느 도시보다도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비빔밥처럼 섞여 있는 곳이다. 도시 안에 리틀 이탈리아,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포르투갈인 거리, 유대인 거리 등이 있어 여행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백인 주부가 한국계 슈퍼마켓에서 포장김치를 쇼핑 카트에 담고, 흑인 부부가 푸드 코트에서 자녀들과 함께 비빔밥을 먹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 또 토론토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도 손꼽힌다. 다른 곳에 비해서 차별이나 편견이 적을 뿐 아니라 각종 이벤트나 행사를 열어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 발간하는 가이드에 ‘게이 빌리지’가 꼭 들려야 할 관광 명소로 표시돼 있을 정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게이 밀집 구역의 거리 이름이 교회 거리다. 다운타운의 중심지인 이곳은 매년 여름 6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게이 퍼레이드를 보러 전 세계에서 모인 관광객, 동성애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 이민자들은 캐나다의 특정 지역에 모여 정착하여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혈통을 자랑스러워하고 모국의 문화를 지켜 간다. 때문에 캐나다는 마치 여러 나라와 민족이 조각조각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캐나다만의 독특한 문화로 만들어지고 있다.
- 우리가 방문한 토론토에서는 문화지구마다 각각 개성의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고, 자국어언어로 길이름을 표시하고 문화적

표현방식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계의 전통 음식을 현지처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의 중심지였다.

- 또한 오타와를 방문한 유명인사가 리도홀의 정원에 나무를 심는 전통, 그 전통의 현장에서 메이플시럽을 만드는 축제 행사를 겸함으로 의미를 되새기는 체험의 현장에서 문화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아름다운 도시 몬트리올에서는 영국계와 프랑스계 두계로 나누어 생활하고 있어 문화적 충돌도 있지만, 공존의 역사도 함께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갈등이 공존함을 현지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독특한 문화를 함께 품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다를 뿐 틀리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2. 캐나다 정치 : 성평등 내각 및 신념

-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15명씩 동수의 ‘성평등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난민 출신과 이민자, 원주민과 장애인을 장관으로 발탁했다. 연령을 30~60대로 다양하게 구성했고, 10개 주와 3개 준주 출신 인사를 모두 망라해 지역 안배를 이뤘다. 트뤼도 총리는 “(다문화 사회) 캐나다를 닮은 내각”이라고 표현했다. 개방과 관용, 다양성에 기초한 ‘드림 내각’으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 트뤼도 내각의 참신함을 상징하는 인사는 민주제도부를 맡게 된 여성 장관 메리엄 몬세프다. 30세로 최연소인 그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이다. 20년 전 어머니와 함께 파키스탄, 요르단을 거쳐 캐나다에 정착한 난민 소녀가 장관에 오른 것이다. 하지트 싱 사잔 국방부 장관은 터번을 쓰고 긴 수염을 기를 시크교도이다. 5세 때 인도에서 이민 온 그를 비롯해 시크교도 여러 명이 내각에 포함됐다.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된 여성 조디 월슨-레이보울드는 캐나다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장관이란 기록을 세우게 됐다. 켄트 헤르 국가보훈부장관 등 2명은 장애인이다.

- 트뤼도 총리는 성평등 내각을 구성한 이유를 묻자 “2015년 아니까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간결하면서도 명쾌하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사회라면 성평등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명제다.
- 우리가 방문한 1982년 지어진 온타리오주 의사당은 그 주 의원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흔쾌히 내놓고 지은 것으로 “용감하게 정당하게”의 모토를 확인하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 몬트리올 시청은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이 방문시 ‘자유퀘벡만세’라 외치며 퀘벡당이 만들어지고 퀘벡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 활동이 시작된 곳으로 소수 민족의 새로운 정당이 가능할 수 있는 구도에 대해 정치적 이해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3. 캐나다의 교육 : 차별에 대한 경계

- 수많은 이민자를 상대해야 하는 캐나다는 이민자 포용 정책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런 나라답게 캐나다 교육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차별에 대한 경계이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로 융합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캐나다는 그 기초를 학교에서부터 심화해 나가고 있다.
- 캐나다에서는 아이들이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인종을 만나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날 때부터 다름을 인지하고 살아간다고 봐야 할 듯하다. 교육은 그저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하모니를 이루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다문화주의 초창기의 캐나다의 공립학교들은 여러 문화와 인종의 이민자들을 영국적 가치에 바탕을 둔 캐나다 시민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으며, 이들을 캐나다 사회에 동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관행은 1971년 연방 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각 주들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 우리가 방문한 토론토 대학은 그 규모가 엄청났지만, 다양한 인종이 한자리에 모여 다름을 다르게 보지 않는 시선으로 자연스럽게 둘러앉아 교실이든, 잔디든 어느 곳에서나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모습도 조화로웠다.

4. 아산시정 접목 활용방안

○ 인구 30만을 넘어 50만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시에 외국인 주민이 총인구대비 6.9%(25,930명)로 도내 1위, 다문화가족 자녀도 1,743명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사회의 체계적 지원방향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선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문화와 정책을 본받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다문화사회 정착(교육, 정치, 경제)의 체계화

- 다문화가족 출신 공무원 채용이나 다문화정책과 신설 등 이민자 및 귀화자의 행정부분 진출 방향을 마련하여 평등과 조화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복지행정을 구현
- 다문화특화도서관, 아산다문화학교, 시민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 다문화교육 방향 마련으로 다문화인식개선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도시 구현
- 외국인노동자 쉼터, 3D업종 처우개선방안, 복지사각지대 외국인노동자 긴급지원 자활방안 마련 등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향상으로 함께 성장하는 아산경제 체계 마련

2) 다양성 존중 인식 개선(문화, 교육면)

- 교육청 지원·연계를 통한 다문화 존중인식 조기 교육 실시
(나와 너는 같은 존재 인식을 조기 교육으로 시작)
- 외국문화 특화거리, 다문화 특화음식 거리 등 문화콘텐츠
개발로 다문화 체험 마을을 조성하여 외국문화가 아닌
우리시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형성

- 이번 공무여행으로 팀원들과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캐나다를
본받아 정치, 문화, 사회, 교육 등 체계적인 다문화주의 정
책들을 정착시키고, 시민들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조기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아산시를 시작으로 한국도
제2의 다문화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 본다.